

중아황산소다 수요 꾸준

수입품 국산대체 힘입어 ... 당분간 안정세 유지할 듯

중아황산소다의 국내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국내 중아황산소다 수요는 93년대비 8%정도 증가한 7000여톤으로 최근 2~3년간 꾸준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수요와 공급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아황산소다 및 아황산소다 생산현황 (단위 : M/T, 원/Kg)					
구 분	1991	1992	1993	1994	가격
중아황산소다	4,000	4,200	4,500	5,000	400
아 황 산 소 다	570	650	700	750	500

염료용 · 폐수처리용 · 아크릴원료용 · 사진현상액 처리용 · 농약원료용 · 식품첨가물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아황산소다는 큰폭의 수요증가나 두드러진 신규 적용분야는 없으나 수요의 자연증가와 안정적 공급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아황산소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진현상액 제조기업인 부흥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흥산업은 연간 65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흥산업의 94년 중아황산소다 생산은 5000여톤으로 93년대비 11.1% 증가해 수입물량의 상당부분이 국산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제품이 국산 중아황산소다에 비해 비싸고,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중아황산소다의 특성으로 인해 국산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수입업자들의 채산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수입품에 대한 수요업계의 불안감이 적기에 실수요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국산제품에 대한 사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의약품용 등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중아황산소다를 일본, 독일 등에서 소량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폐수처리용 등 저가의 중아황산소다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아황산소다와 용도가 비슷한 아황산소다의 94년 생산실적은 750톤으로 95년대비 7%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황산소다는 탈염소용 · 피혁처리용 · 펄프표백제용 · 보일러청관제용 등에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흥산업이 연간 12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대량의 PLANT공정에서 부산물로 아황산소다가 생성되고 있어 국내 제품에 비해 절반가격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품질은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아황산소다는 Kg당 400원선에 거래되고, 아황산소다는 Kg당 5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4/24>